

하나님의 포커스 : 중심!

- 입을 말씀 삼상 16:7
- 주요 내용

오늘은 「중심이 미래를 좌우한다!」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짱과 몸짱은 성경에서 “용모”와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삼상 16:7). 이 둘을 합한 것이 단순한 의미에서의 “외모”입니다. 그러나 외모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의하면 외모에는 “용모”와 “신장” 뿐 아니라 학력, 직업, 재산, 사회적인 지위 등 인간이 가진 모든 것(1-4)이 포함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외모를 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본다는 것을 압니다. 그 때문에 자신을 볼 때도 중심을 살피지 않고 외모를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세울 것이 많아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모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성도와 가짜 성도, 참 일꾼과 가짜 일꾼, 참 목사와 거짓 목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최고의 관심은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해서 모두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에 대해서도 최고의 관심이 그들의 구원이며,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다면, 크건 작건 무슨 일이든 그 이상의 영광

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에도 소원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불같은 소원은 활화산처럼 끓어올랐고, 그 소원은 20년 넘게 약해지지 않고 계속 끓어올라 저를 완전히 삼켜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런 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보다도 마음 즉 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부족한 제가 쓰임받고 있는 이유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제게 ‘중심’ 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중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중심에 대해 가르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중심이 바른 목사와 성도들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 하나님의 포커스: 중심!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면 사람을 옳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처녀 시절, 대학에 등록하러 갔을 때 베이브 에반스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질게 하고, 큰 고리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하이디는 이곳에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생일이 언제지요?” 하고 물었고, 하이디가 생일을 알려주자 그녀는 “그게 아니고요. 당신의 영적 생일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하이디가 회심하던 날로부터 정확히 일 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께서서 오늘이 당신 생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고 축하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외적으로 풍기는 것과 그 사람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신 1:17, 요 7:24, 약 2:1). 심지어 야고보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약 2:9)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즐기치게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외모를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신 10:17, 욥 34:19, 앰 6:9).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른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근

거가 바로 “...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
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 될 사
람을 선택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기 전에 그
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기 위해 선택할 때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저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영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령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목사일 수가 있지? 하나
님이 실수 하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
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하
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저처럼 저의 실수나 부족이 아니라, ‘중심’ 을 보고 계
셨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중심이 발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
하게도 제가 돈이나 지위를 사랑하거나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더 분명하
고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언제
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
도 아니다’ 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정부의 표적
이 될 수 있는 ‘동성애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었고, 광화문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이런 선택들을
보면서 저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욕심이
없어지고, 더 순수해지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아! 이런 것이 중심이 바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 안심이 되
었고 성도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집회에 서게 될 때마다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
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해드리기 위해 설교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제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진리를 외쳤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나의 죄나 실수, 부족이 아닌 나의 중심을 보고 계셨구나! 나의 중심을 보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자!’

이사야 38장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3)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는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대해 “나는 너의 걸모습을 보지 않았다. 너는 순전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네가 놓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항상 너의 심령(중심)을 보고 있었다. 네가 뭔가를 잘못하고 놓쳤다 해도, 나는 ‘이 사람의 중심은 내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적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은 어떠하였는지 돌아보고, 나의 실수와 잘못보다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위로하며 격려해주셨던 주님으로 인해 마음의 놀림에서 회복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